

# 국대호 Guk Daeho (b.1967)

@gukjjakga

학 력 1998 파리 8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졸업 (MFA)  
1995 파리 국립 미술학교 회화과 졸업 (MFA)  
199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BFA)

개 인 전 2023 AUGHT NEW YORK (뉴욕)  
gleam (갤러리BK 한남, 서울)  
2022 노블레스 컬렉션 (서울)  
2021 강동 아트센터, 아트랑, 서울  
2018 최소한의 언어 (갤러리 서화, 서울)  
2017 환기재단 작가전, 색·채·집 (환기미술관, 서울)  
2015 Place of memory, Cities (TAKSU Gallery, 싱가포르)  
2012 Seoul (아틀리에 아키, 서울)  
2011 ITALIA (갤러리 그림손, 서울)  
그 외 다수

초대 / 단체전 2023 송고한 감정들 (두남재 아트센터, 서울)  
2022 공명의 순간들 (갤러리 두인, 서울)  
더 리뷰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  
감각과 본질, 국대호 이상민 임광규 3인전 (갤러리 콜론비, 서울)  
2020 색3인전-색-3인전 (콜론비 아트 갤러리, 서울)  
2019 색. 변주곡, 국대호 김형관 2인전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외래 갤러리, 서울)  
국대호.이기숙 2인전 (갤러리 Wave, 부산)  
2017 국대호, 박승모 2인전 (아트 스페이스 호서, 서울)  
2016 "틈" UNDER THE SKIN (갤러리 세줄, 서울)  
3인 회화전-김춘수, 국대호, 김형관 (김세중 기념관, 서울)  
연애의 온도 (서울미술관, 서울)  
2015 생각하는 빛 (양평군립미술관, 경기도)  
2인전 -국대호, 유봉상 (갤러리 송아당, 서울)  
3인의 향연 (아트 스페이스 호서, 서울)  
2014 색(色)의 언어 (모란미술관, 마석)  
Homage a Whanki II (환기미술관, 서울)  
사진과 회화의 동행-국대호, 주도양 2인전 (D갤러리,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2013 파사드 부산 (부산 시립미술관, 부산)  
2011 듀얼이미지 Dual Images (포항 시립 미술관, 포항)  
색 x 예술 x 체험 x3 (고양 어울림 미술관, 고양)  
2010 unique & useful (인터알리아, 서울)  
경계의 교차전 (인터알리아, 서울)  
그 외 다수

작 품 소 장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 시립미술관, 부산시립 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미술은행, 대림미술관,  
광주 시립미술관, Croix St-Simon 병원(파리), 외교통상부, 서울대학교, JTBC사옥, 환기 미술관,  
비트리 시립미술관(프랑스), (주)페리에 주예(프랑스), 63스카이라트 미술관, 메리어트 여의도  
파크센터, 수원 아이파크 미술관, 시공사, 양평 군립미술관, 한독약품,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비발디  
파크, 쉐라톤인천호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서울 동부 지방법원, 다보 미디어, 루터 어소시에잇  
코리아, 샤프 드 클리냥시(프랑스), 파라다이스 시티  
그 외 다수

## [Artist's Note]

---

빛과 색은 삶과 분리될 수 없다. 빛과 색은 오직 생명체의 망막을 통해서만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색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에는 예술가의 시선이 덧대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대호는 이름도 붙여지지 않았을 무수하고 미세한 색들을 조망하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는 작업을 수행한다. 색을 이루는 각각의 입자에서 느껴지는 생동감은 그의 작품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다.

절제된 묘사와 높은 밀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힘찬 스트로크는 색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붓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회화는 의도와 우연의 맞물리는 지점으로 존재한다. 의도와 우연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은 시각은 무수한 확장성과 포용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국대호의 예술 세계는 무궁무진한 미래와 연결된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오직 미래만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대호에게 색이란 자신이 경험했던 풍경의 잔상이자 세계를 보는 창이다. 따라서 그의 회화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의 지점으로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닌 대상들을 잇는다. 그렇게 이어진 색들은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진정한 회화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안긴다. 이러한 질문은 감상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대호는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던져 끝없는 문제를 제기한다.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캔버스 위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래서 세상과의 교감,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위대한 고뇌의 시간을 감각할 수 있다.

*“대체불가능한, 회화 속 색의 본질을 탐구하고 표현하고자  
나는 오늘도 캔버스에 색이라는 매개체를 핑계로 기억 속 여행을 떠난다.”*

결국 예술은 작가만의 조형언어로 세상에 말을 건네는 작업이다. 색이라는 원초적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는 대상의 경계를 허물고 분명한 형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계속된 실험과 연구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국대호의 색면 추상은 지금도 꾸준히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담론을 던지고 있다.

그가 바라보는 풀 컬러의 세상은 어떠한 시대의 잔상으로 남게 될까.